

거문고와 가사 歌詞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사유와 감정을 담아낸 중요한 매개체로, 산조의 자유로운 선율과 가사 문학에 담긴 깊이 있는 사유는 인간의 내면을 어루만져 왔다. 그래서 전통을 단지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재현이 아닌, 거문고로 가사를 노래하는 방식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의 과정이다. 더 나아가, 전통을 잇는 거문고가 시대와 함께 살아 숨 쉬는 악기이자 새롭고 풍부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한갑득류와 이재화류 거문고 산조를 발표하고, 가사 연구와 정악, 창작을 넘나드는 시도를 통해 전통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통을 지키되, 고여 있지 않은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자유롭게 전통 속을 거닐며 시대와 함께 숨 쉬는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도움을 주신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보존회, 이재화 거문고회, 이가회에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방실 Lee Bangsil

수상

-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이수자
- 국가무형유산 가사 이수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거문고 전공)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국악과 졸업(거문고 전공, 음악학 석사)
- 전) 서울대학교 국악과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악과 강사, 국립국악고등학교 실기 강사
- 현)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단원,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보존회 회원, 이재화 거문고회 회원, 아시아 금교류회 이사, 거문고 병창클럽 동인, 단국대학교 국악과 강사, 국가무형유산 총연합회 회원

독주회

- 2003 이방실 거문고 독주회(국립국악원 우면당)
- 2008 이방실 거문고 독주회(민속극장 풍류)
- 2013 이방실 거문고 독주회 “봄의 정원으로 오라”(국립국악원 우면당)
- 2023 일리관지 가춘회상 독주회(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 2023 이방실 거문고 독주회 “자적”(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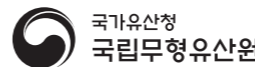
<b>이방실</b> 거문고산조, 가사 소요 逍遙: 거문고, 전통 속을 자유롭게 거닐다 7.12 sat	<b>노영수</b> 통영오광대 <b>노병유</b> 강령탈춤 화용지무 華龍之舞 9.6 sat
<b>윤호세</b> 판소리고법 장단 問答 問答 7.19 sat	<b>김소진·정윤희</b> 판소리 적벽가: 복원된 목소리 9.13 sat
<b>박계전</b> 삼현육각 피리로 경기놀다 8.2 sat	<b>권은경·강예진</b> 판소리고법 2025 죽마鼓우 9.20 sat

일수마루 소공연장 오후 4시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제작진**  
연출 — 김시화

**국립무형유산원**  
제작 — 국립무형유산원 공연협력팀  
제작총괄 — 박판용 韓博  
공연총괄 — 탁경백  
기획 — 최미진  
운영지원 — 문철훈, 하윤아, 박민혜, 이다건  
무대감독 — 장오성  
음향감독 — 이재정, 박준혁  
조명감독 — 박재섭  
영상감독 — 안정훈  
기계감독 — 라경채  
하우스·티켓 — 전소라, 서혜진  
행정 — 신태웅, 장재호  
시설 — 지문근, 윤성호, 오준상, 김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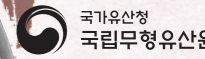
공연문의 및 예약  
공연예약: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www.nihc.go.kr  
공연문의: 063 280 1500, 1501 / 전석 무료 공연



이방실 거문고산조, 가사  
소요 逍遙:  
거문고, 전통 속을 자유롭게 거닐다



국가 또는 시·도 무형유산 전수교육을 통해 차세대 무형유산 전승자로 인정받은 이수자 履修者. 올해 선정된 6팀의 이수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공연하는 무대를 통해 우리 무형유산이 나아가갈 방향을 살펴본다.



履修者 25 이수자던 停

2025. 7. 12 sat 16:00 일수마루 소공연장

공연 프로그램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  
 이방실 거문고, 정준호 북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는 단아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구성이 특징이며, 시김새는 섬세한 변화를 추구하고 왼손의 자출성이 효과적으로 쓰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진양조-중모리-엇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 순으로 연주된다.

**가사 황계사**  
 이방실 거문고, 박장원 대금, 공경진 해금, 홍석복 장구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곡이다. 슬픈 감정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각 장마다 “지화자 좋을시고” 라는 후렴구가 반복된다.

<p><b>일조낭군이별후</b> 日朝郎君離別後 에                  소식 消息 조차 돈절 頓絶 허다                  지화자 좋을시고</p> <p><b>중을 중을 중은 경</b> 中에                  일시구 중다 竟 中이로다                  지화자 좋을시고</p>	<p><b>병풍</b> 屏風 에 그린 황계 黃鷄                  두 나래를 등당치며                  사오 경일점 四五更一點 에                  날 새이라고 고기요 올거든                  오라시나 지화자 좋을시고</p> <p><b>저 달아 보느냐</b> 임쁘 계신데                  명기 明氣 를 빌리렴 나도 보자                  지화자 좋을시고</p>
---	--

**어부사**  
 이방실 거문고 병창,  
 박장원 대금, 공경진 해금,  
 홍석복 장구  
 강호에 묻혀 사는 선비의 삶을 어부에 빗대어, 배를 띄워 놓고 노니는 풍류와 정취를 묘사한 곡이다.

<p><b>설빈어옹</b> 雪鬢漁翁 이                  주포간 住浦間 하여                  자연거수승거산 自言居水勝居山 을</p> <p><b>배 띄어라</b> 배 띄어라                  조조재락만조래 早潮纔落晚潮來 라</p>	<p><b>지국총지국총어사와</b>                  至菊叢至菊叢於斯臥 허니</p> <p><b>의선어부일편고</b> 依船漁父一肩高 라</p> <p><b>청고엽상양풍기</b> 靑菴葉上涼風起 허고                  홍요화변백로한 紅蓼花邊白鷺閑 을</p>
---	---

**매화가**  
 이방실 거문고 병창,  
 김가온 재즈 피아노  
 매화가는 노랫말 중 “매화 梅花 야 옛 등걸에 봄철이 다시 돌아를 온다” 에서 붙여진 노래로, 매화라는 기생이 임을 그리는 내용이 주로 그려져 있다. 노랫말은 여러 편의 시조시를 일관성 없이 엮어 놓은 것이며, 민요풍의 통속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번 공연에서는 재즈피아노와 거문고 병창으로 색다르게 구성하여 연주한다.

<p><b>매화 梅花 야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를 온다</b></p> <p><b>옛</b> 띄웠든 가지마다 피엄죽도 하다마는</p>	<p><b>또 한 손에는 물막 들고 흐르는 청수 淸水 를 드림떠 덩석 이리로 살살 저리로 살살 출렁출척</b></p> <p><b>안 남산 南山 에 밋 남산 南山 에 개암을 개암을 심어라 심어라 못다먹는 저 다람의 안과</b></p>
---	---

**걸리걸리 걸리소서 정든님만 거걸리소서**

**성천 成天 이라 동의주 通義州 는 이리로 접침 저리로 접침 저물어 접침 개어놓고 한 손에는 망추들고**

**이재화류 거문고 산조**  
 이방실 거문고, 정준호 북  
 이재화는 1969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현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에 부임했던 한갑득 명인을 첫 스승으로 맞아 사제의 연을 이어왔으며, 2006년부터는 “완성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산조”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산조를 선보이고 있다. 2025년 4월 공개행사에서 초연된 이재화류 거문고 산조는 본 공연에서 이수자 가운데 처음으로 연주를 선보이게 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 순으로 징과 함께 연주된다.

출연진



**정준호** 북, 징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  
 ·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지도단원  
 · 2002 해남전국고수대회 대통령상 수상



**박장원** 대금  
 ·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이수자  
 ·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이수자  
 ·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  
 · 현) 중앙대학교 출강



**공경진** 해금  
 · 국가무형유산 가곡 전수자  
 ·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  
 · 현) 경북대학교 출강



**홍석복** 장구  
 ·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  
 · 전) 서울예술대학교 외래교수  
 · 현) 판소리보존회 경기지부 이사



**김가온** 재즈 피아노  
 · 서울대학교 음악학과, NYU 재즈피아노 석사(M.M)  
 · 1집 [Un/Like the other day]의 다수의 앨범 발표  
 · 현) 백석예술대학교 교수